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3월 1일 (제104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겔 럽

하나님을 아는 법

다이아몬드는 그냥 돌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제되고 세공될 때 무한한 가치를 갖게 된다. 우리 인생이 돌 같은 존재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변모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이다. 기도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 사울이 바울이 된 것, 부족한 이춘석이 이초석이 된 것이 그것이다. 또 디엘 무디나 에이브러햄 링컨도 돌에서 값진 다이아몬드로 탈바꿈한 인생의 샘플 아닌가.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고 하심이, 내가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기반으로 둔 것이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번역함이 없으신 하나님마저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인 것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닫았던 태의 문을 열고 태어난 기도의 산물이다.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출생부터 남달랐던 사무엘은 기도의 위력을 알았기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평생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일생을 살았다(삼상12:23).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했고,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고 말씀했다.

기도하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장래 일에 대해 알게 된다. 또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속도 통달하게 하신다(고전2:10). 그러니 무엇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겠는가.

힘들고 어려운가? 돌처럼 이리 차이로 저리 차이는 신세인가?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존재, 값진 존재가 되고 싶은가? 기도하라.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키리라.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믿음과 지혜는 다르다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전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역 선별진료소 등의 진료현장에서는 전문의료인력 및 자원봉사자들의 바이러스와의 눈물겨운 사투가 계속되고 있고, 급작스런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이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코로나19 발생의 정확한 원인도 여전히 추적 중에 있고, 마땅한 치료제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두려움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정부당국에서는 전염병 예방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공지하는 한편, 각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에 집회계획을 한시적으로 중단해줄 것

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다 팽개치고 믿음, 믿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한 손에 빵을 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대책으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히 씻어라, 기침 증세가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써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1339 콜센터로 연락하라’ 등의 여러 지침이 지속적으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야~’ 하며 이를 무시하다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름통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입니다. 내가 늘 광고를 잘 들

어서 고지하는 지침을 잘 따라서 위생규칙을 준수하시고, 혹시라도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즉시 1339 콜센터로 연락하여 절차를 따르기 바랍니다.

비상한 시국입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아하고 정부와 국민, 여야 가릴 것 없이 국가적 위기 앞에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질병관리본부
KCDC

발열, 호흡기 증상 시
관할보건소 및 1339, 지역번호+120 문의

1339
NOW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필수 위생수칙 4가지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을 요청하고 있다.

목사님은 지난주일 설교를 통하여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 위기 극복을 위해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촉구하셨다.

“믿음과 지혜는 다릅니다.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믿음하며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어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모세의 광고를 듣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무사했으나 이를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든 이를 피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우리 선교사 중에도 태국에서 들어와 자가격리조치를 받았으며 교회에 나올 수 없다 하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2주 격리기간 동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요.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예방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재앙을 무시하고 아집을 피우다 당하고서는 또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각 선별진료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실무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상고하며 더 이상의 전염병 확산이 없도록,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요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나라 전체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국난(國難)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매일 매스컴에서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손 씻기를 잘하고, 마스크를 꼭 사용하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발열증상이 있고 기침이 심할 때는 1339 콜센터로 전화하여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지사항에 잘 따라야 합니다. 괜히 ‘믿음입네’ 하고 이 공지사항을 어기고 맘대로 행동하면 나쁜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나팔수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잠27:12).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세워 그 시대의 나팔수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군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겔33:7)

숯을 가까이 하면
검정이 묻는 법이다

에스겔 33장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 경고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나팔소리를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역하고, 최악의 길로 행하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숫군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겔33:2~5).

예레미야 6장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나팔수로 쓰셔서 나팔을 불게 했건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반역과 불순종의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하지만 목이 굳은 백성들이 이를 듣지 않습니

다. 그 결과는 당연히 심판이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숫군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렘6:17~19).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는 것을 저지하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중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 에 앉은 바

로 의 장자로 부터 뱀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찌라”(출11:5)고 모세는 경고합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팔 불기를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찌라 내가 피를 불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출12:13)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여 죽음을 피했으나 바로는 모세가 경고하는 나팔소리를 무시하다가 자기 아들은 물론, 애굽의 모든 장자와 동물의 처음 난 것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자가격리 하라 하면 해야지요. 괜히 돌아다니면 그건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 시대의 목사들을 통해 경고의 나팔을 불면 들어야지요. 안 들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당신을 무



총회장 이초석 목사

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잘 지킬 때 원활한 교통체계가 이뤄지는 것처럼, 국가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할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에덴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법을 지켰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세겔이 있으면 내야죠. 예수님도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함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마22:21)고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롬13:7)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국민이면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롬13:1~2). 한 나라의 통치권자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국가의 법을 지키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법 위에 잠을 자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

는 꼴입니다. 절대 법을 무시하거나 나팔수의 경고를 무시하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국가가 직면한 코로나19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을 예로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과 대조됩니다. 역대상에는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했으나 사무엘하 24장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같은 인구조사 같으나 그 경위가 다른 것입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이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실시하라는 명을 요압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요압도 제대로 계수하지 않고 왕에게 보고 하자 하나님이 노를 발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 세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중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원하여 온역을 택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시끄럽습니다. 세상에 분이 되지 못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나팔수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를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나팔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죄 역시 중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숫군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숫군의 손에서 찾으리라”(겔33:6). 우리 모두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잘 대처하도록 우리 모두 협조하고, 기도합시다. 분명히 단시일 내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투자의 시작, 저축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대신 소비생활을 즐깁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거나 비싼 차를 사고 할 부금을 갚는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빈손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고 인생을 편안히 즐길 나이에 빠듯하게 살아야 하겠죠. 나이 들어서 곤궁하게 사는 것은 젊어서 절약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우울합니다. 이런 운명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가능한 한 일찍 저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저축으로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해 미국 2위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버핏은 다른 소년들처럼 신문 배달로 투자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는 1달러라도 더 벌려고 노력했고, 어린 나이에 돈의 미래가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버핏에게 400달러짜리 TV는 400달러의 가치가 있는 상품이 아니었고, 그는 항상 400달러를 쓰지 않고 투자한다면 20년 후에 얼마로 늘어날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덕분에 버핏은 불필요한 상품에 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저축과 투자를 시작한다면 돈이 당신을 먹여 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돈이 대신 일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경제적인 독립이지요. 젊을 때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는 한 이 꿈은 결코 이뤄

지지 않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저축예금, 골동품 수집, 부동산 혹은 채권이 나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채권이란 ‘빚지고 있다(IOU: I Owe You)’는 것을 우아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흔히 채권을 산다고 말하지만, 이는 단지 채권에 기록된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한 회사의 일부를 사는 것입니다. 회사가 발전하면 열매를 공유하게 되죠. 배당금을 지급하면 배당금을 받고 배당금을 인상하면 혜택도 늘어납니다. 배당금이 주식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보너스인 셈이지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백만장자나 억만장자처럼 많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세대는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찍 투자한 작은 돈이 나중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익입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기도통장에 날마다 쉬 없이 기도를 저축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응답이라는 감사의 축복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말이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46:10).

이미경 권사

:: 신앙논객 ::

맛보아 알찌어다

요새 ‘떡방’, ‘국방’ 같이 음식을 만들거나 맛집을 찾아가서 먹는 모습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고 인기가 있다. 사실 내가 직접 먹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남이 먹는 것을 보는 것일 뿐인데도,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또 그것을 먹고 만족스러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출연자들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나 보다. 하지만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내가 직접 가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으면 화면 속 음식의 맛은 알레야 알 수가 없다. 먹어봐야 맛을 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나의 경험을 초월할 수 없다.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신앙 여정을 돌이켜봐도, 어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오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나의 이론과 논리를 깨뜨리시며 만나주시는 것을 셀 수 없이 경험해왔다. 스무 살 때 성인으로 우리 교회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딜 때만 해도 설교 말씀 자체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예배시간은 한없이 길고 지루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가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

어 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나는 간데없고, 이제는 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다닌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내 골수와 심령과 생각을 쫓개는 경험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또 내가 직접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병을 예배시간을 통해 고침 받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이후에 몸이 아플 때면 병원과 약부터 찾았을 것이다. 다만 이뿐이라? 기도의 위력을 맛보고, 신원해주심을 맛보고, 공급해주심을 맛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맛보게 해주실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된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때가 되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찌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34:8).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선택의 결과

태어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지만, 그 외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고, 선택에 따른 결과 역시 내 몫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신30:15). 생사화복(生死禍福), 희로애락(喜怒哀樂)은 내 선택이 낳은 결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하신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신명기30:19~20)고 말씀하신다.

정답을 주면서 선택하라고 하는데도 오답을 선택하는 자는 천하에 어리석은 자다. ‘설마 그런다고 복이 오겠어? 그렇다면 다 복 받고 잘 살게?’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전12:13).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하다.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국가가 나를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정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거기에 생명과 복이 있다.

총회장 목사님이 그 샘플이 아닌가. 삶을 통해 진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도 목사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이은성



:: 소망의 언덕 ::

텀블러 같은 사람

언젠가 컵속까지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 산기도를 갔다. 기도하다 몸을 녹일 요량으로 뜨거운 물을 마시려고 담은 페트병을 꺼내들었더니 얼음처럼 물이 차가워져 있었다. 분명 뜨거운 물을 담아왔는데도 얼마 되지 않아 얼음물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다음 산기도를 갈 때는 페트병이 아닌 텀블러(보온병)에 물을 담아갔다. 한참 기도를 하다가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쥐었을 때, 두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텀블러의 겉은 지난번 페트병처럼 차가웠는데 뚜껑을 돌려 물을 따르니 뜨거운 물이 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가슴까지 뜨거워지는 물을 한 모금씩 들이키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다. ‘페트병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텀블러 같은 사람이 되어라.’

뜨거운 물을 부을 때는 요란하지만 이내 식어버리는 페트병의 모습이 마치 예배시간에 곧잘 은혜 받고 격동하지만, 곧 그 열정과 행함이 식어버리는 내 모습과 같아 부끄러웠다.

텀블러는 어떻게 그 뜨거움을 식히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보온병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있

는 진공관 때문이다. 그래서 진공관이 깨지지 않게 해야 한다. 크리스천에게도 세상과 자신을 구분하는 진공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끌어버리실 정도로 한탄하시던 시대에도 노아는 의인이었으며 완전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노아가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다(창6:8). 요셉이 그토록 연속되는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꿈을 이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붙잡았기 때문이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열정적인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은혜는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진공관이 깨진 텀블러요, 페트병과 같다. 그러므로 은혜를 먼저 회복하여 식지 않는 열정의 신앙인이 되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계2:4~5).

이현승 목사

:: 간중 ::

:: 귀를 기울이세요 ::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5~28년 전, 제가 타고 단 장로였을 때 일입니다. 이초석 목사님을 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그 많은 성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기도원에 쌀과 부식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당돌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밥은 무료로 주면서 비디오테이프는 왜 돈을 받고 팔니까?”라고. 그러자 목사님은 “테이프 값이 얼마인데 그걸 무료로 주나”라고 하셨습니다. “밥을 무료로 주니까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쌓아주신다면 서요. 테이프를 무료로 주면 은혜 받은 사람이 천만 원, 1억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라고 말씀드리고는 바로 625만 원 짜리 가계수표를 끊어드리며 “테이프도 무료로 나눠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매월 10일에 송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의 말을 귀담아들으시고는 비디오테이프를 무료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목사님 해외 선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저는 평택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택교회에 가보니 월세가 900만원이나 밀려 있었습니다. 본부에서는 다 갚아줄 테니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택에 가서 평택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빛 값을 때까지 사례금을 받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집에서 돈을 조금 가져다가 먼저 현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달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내가 결혼식에 가면 내 결혼식에 상대방도 옵니다. 내가 안가면 상대방도 안 오지요. 내가 십만 원을 하면 방명록에 그걸 적어 놓았다가 내 쪽 결혼식 때 상대방도 십만 원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십만 원이 가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물건을 산만큼 포인트를 줍니다. 많이 사면 많이 주고, 적게 사면 적게 줍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이제까지 쌓아있는 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많이 심으면, 주의 일을 많이 하면 하늘에 포인트가 쌓이고, 그것은 내가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져다 쓸 때가 있으면 가져다 드릴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가져다 쓸 줄만 알지 가져다드릴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져다 쓸 줄만 알지 드릴 줄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합니까? 총회장 목사님께도 35년간 가져다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도원 숙소공사 허가가 났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에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기도원집회 때마다 숙소 때문에 전쟁입니다. 숙소를 얻으려고 집회 첫날인 월요일 아침 일찍 오던 교인들이 이제는 전날인 주일 날 밤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호텔을 얻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노인들은 화장실이 없는 숙소가 불편하다고 목사님을 잡고 하소연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고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 제2호텔을 지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순종하면 복

입니다. 힘에 부치면 기도로 동참하면 됩니다. 야인시대 김두한 두목은 아시나요? 부하들이 8천 명이나 되다 보니 먹여 살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친일파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 몇 명을 골라 돈을 빼앗아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두한 두목은 자기 집에 가서 집문서를 은행에 담보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부하들은 집문서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김두한은 “내가 먼저 내놓아야 남한테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도자는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군데에 가면 숙달된 조교가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모르드개가 사람을 보내 에스더 왕후에게 이 계획을 전하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유대인들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밤낮 삼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 이를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신 것은 다 이 때를 위해 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두 다 기도원 공사에 동참하시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잘 깨달아서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 무슨 일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주 앞에 설 때 무엇을 주님께 내놓겠습니까?

평택예수중심교회 박종수 목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코로나19, 잘 알고 잘 대처하자

코로나19 전염방식은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되므로,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과 자주 손을 씻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지만,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치료(대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진료지침이 발 빠르게 추가되어 나오고 있으며, 효과가 있는 약물과 그렇지 않은 약물들이 4판, 5판 진료지침과정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5판의 진료지침에서는 기존의 항바이러스 치료법이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C형 간염치료제인 리바비린

(Rivavirin)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기존의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약물을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며, HIV 치료제들이나 리바비린(Ribavirin)과 같은 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근거가 충분히 쌓여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변이되는 바이러스이기에 임상시험도 불가능하고 여러 경제적인 이유로 백신을 만들 환경도 어렵다고 합니다. 중의 치료에 대한 진료지침은 계속 추가되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사재기로 절판된 쌍황련 등은 사스와 메르스 때 어느 정도 효력이 입증되어 일반인의 기대가 크다 보니 중의 과립제, 캡슐제 등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은화, 황금, 연교 등은 항바이러스, 항균 등의 효능이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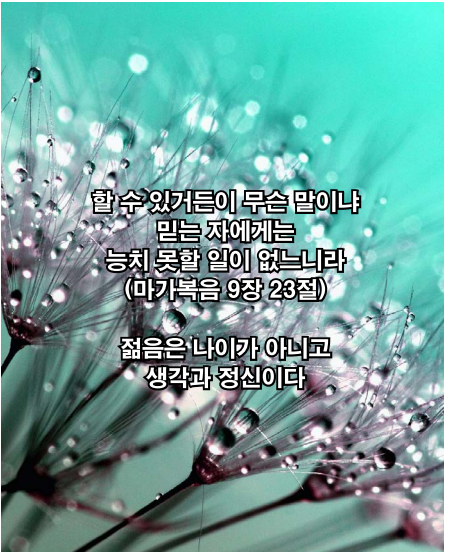
되었으며, 유사하게도 약국에서도 은교산, 연교패독산과 같은 감기약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좀 더 주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손 씻기는 30초간 꼼꼼하게 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생과 접촉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가정 내에서 호흡기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 감기에 쉽게 걸리는 분들은 도라지차, 생강차 등이 도움이 되며, 계피차 등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기증세가 있다면 꼭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감기약을 탈 때 연교패독산이나 형방패독산과 같은 한약감기제제도 병행하시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바이러스를 이기는 대한민국

세계 각국의 보건전문가들이 한국 보건당국과 정부,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노력에 감복하고 있다. 우선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전파가 많았지만 지금까지 26,000명을 넘게 검사했으며, 매일 5,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면서 주변국 일본, 중국과는 다른 투명한 보건당국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미국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사주간지 타임에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한국 조지메이슨대 방문연구원은 한국의 확진사례가 많은 것은 한국이 높은 진단 능력과 언론의 자유,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체제라고 칭찬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갖춘 나라는 극히 소수라고 말했다. 실제 대한민국의 질병예방 대응능력은 195개국 중 9위로 질병탐지에서는 92.1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부산대 국제관계학 교수 로버트 켈리는 미국의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테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스스로 방역하며 보건당국의 지침에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위기 가운데 나라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헌신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선별진료소의 전문 의료진들, IT 역학조사 시스템(휴대폰 및 신용카드 기록, CCTV 화면 분석 등)을 발 빠르게 운영하며 마스크 대란까지 잠재운 정부, 지금 당장의 이윤까지 포기하며 재택근무로 돕고 있는 대기업들, 잠시 예배까지 중단하며 기도로 돕고 있는 종교계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이 난국은 금방 해결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기도와 예배의 소중함을 귀하게 깨닫게 해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제일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예배가 작금의 시간 속에 너무나 소중함을 느낀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시 3:4).

송현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젊음은 나이가 아니고
생각과 정신이다